

성스러움의 세속화와 성직매매: 조이스의 「은총」*

홍 덕 선

I

가톨릭교는 조이스의 문학적 감수성에 깊이 뿌리내린 상상력의 수원지이다. 열렬한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가톨릭 예수교과 사제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조이스에게 가톨릭 교리와 제의는 단순히 문학적 소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하였다. 그의 문학적 상상력은 초기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톨릭의 종교성을 천착해 들어갔다. 예를 들어, 그가 젊은 시절에 몰두했던 에피퍼니 미학론은 아퀴나스의 가톨릭 신학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가톨릭의 성찬예식과 성육신론은 예술품의 창조과정을 설명하는 은유로 사용되고, 인간의 원죄론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작품의 주제가 된다. 한 비평가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가톨릭 교리는 조이스의 이상적 미학주의가 가질 수 있는 불투명성의 위험을 보완하여 현실을 인식해가는 분석적 틀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Phillips 193). 즉, 미학주의가 빠질 수 있는 관념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KRF-2005-079-AM0032)

적 이상주의와 낭만성을 제어하여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할 인식의 힘을 조이스에게 제공해준 틀이 가톨릭 교리와 의식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톨릭 교리와 의식이 지닌 초월적 종교성은 현실세계를 넘어서는 상징체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이스에게는 오히려 현실을 이해하는 분석적 틀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톨릭이 그의 문학적 상상력에 위치한 역설적인 미묘함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조이스의 문학세계에서 현실 분석의 틀로써 가톨릭이 갖는 역설적 의미는 그의 생애에서 가톨릭교회를 거부하면서도 가톨릭 교리와 의식을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해간 이율배반적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조이스의 미묘한 이율배반적 입장은 조이스의 자서전적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스티븐 데달러스(Stephen Dedalus)의 입을 빌려 친구 크랜리(Cranly)에게 토로하는 장면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스티븐은 어머니가 간구하는 성체성사를 거절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2천 년이라는 세월이 걸쳐 뭉쳐진 권위와 존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 상징에 대해 거저된 경의를 표할 때 내 영혼 속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학작용이 두렵다”(P 374). 이것은 스티븐처럼 개인의 주체적 자아의식을 억압하는 가톨릭의 전통적 권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조이스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말이다. 이에 대해 크랜리는 부활절 고해성사는 순전히 어머니를 위해 하는 형식일 뿐이라고 몰아세운다. “그게[고해성사] 네게 어려운 일이겠니? 믿지 않아도 괜찮아.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 그 밖의 아무 것도 아냐.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친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니?”(P 371). 그러나 스티븐에게는 미사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었다. 가톨릭 의식은 로마 가톨릭의 하느님을 대변하는 종교적 상징체계이면서도 삶의 현실을 설명해주는 구체적 실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은 성체성사에 대해 “난 믿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것도 아냐”(P 368)라고 상호모순적인 대답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가톨릭의 교리와 의식은 조이스에게 단순히 추상적인 상징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 상징이 구현되는 구체적 실체이다. 자연히 그의 문학세계는 가톨릭이란 추상적 상징체가 현실의 삶에서 작동하는 구체적 현상을 분석해 가는데 집중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톨릭의 상징체를 현실의 삶을 분석하는 틀로 작동시키는 조이스의 문학적 방식을 그의 단편 「은총」(“Grace”)에서 해명해가는 데 있다.

조이스는 가톨릭의 교리와 의식을 단순히 형식으로만 생각하거나 실체가 없

는 종교적 수사로 간주하는 자들을 비판한다. 그는 가톨릭 종교가 대변하는 영적 가치와 권위가 한갓 형식적인 수사로 전락하는 것을 가톨릭의 세속화로 간주하고, 이 세속화를 이끄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적 시선으로 치밀하게 분석해나간다. 그의 첫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은 형식적 수사로 뒤바뀐 가톨릭교회를 노골적으로 풍자하는데 중심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단편집의 첫 머리에 나오는 “마비,” “노먼”(gnomon), “성직매매”는 이 작품집의 중심 주제를 이루는 표제가 되는데, 이때 종교적 의미를 띤 “성직매매”(simony)는 실제적인 성직매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교회가 영적 성스러운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순한 권위의 수사 또는 물질적 상품으로 바뀌어가는 세속화를 의미하는 은유이다. 더구나 중심부 영국제국을 모방하는 주변부 식민지의 상업적 근대화가 진행되는 20세기 전환기 시점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성직매매 주제는 조이스가 식민지 현실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가는 하나의 틀이며 도구이다.

『더블린 사람들』의 15편들에는 더블린이란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 당연히 가톨릭 종교의 소재가 곳곳에 등장하지만, 성직매매의 특별한 주제를 다룬 단편은 단지 「자매」(“The Sisters”)와 「은총」 뿐이라고 하겠다. 특히 더블린의 “공적 생활”을 다룬 「은총」은 더블린 공동체가 부딪치는 상업적 세속화의 문제를 종교의 프리즘으로 해부해 나간 작품이다. 이 단편은 『더블린 사람들』의 다른 단편보다 상대적으로 비평적 논의의 초점이 되어온 작품은 아니다. 그렇지만 종교의 물질적 세속화 현상을 사회공동체의 집단적 차원으로 확대 해부해 가는 「은총」의 서술방식은 상당히 독특하고 치밀하다. 본 논문은 3부 구성으로 이루어진 「은총」을 이 신사의식, 종교적 수사(修辭), 상업적 비유의 3가지 측면에서 사회공동체의 집단적 병폐 현상을 포착해내는 조이스의 문학적 방식의 독특함을 분석해가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I

「은총」의 작품 분석에 앞서 먼저 이 작품이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 중에서 “공적 생활”을 다루는 작품들에 포함된다는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이스는 1905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은총」을 「애러비」(“Araby”)와 함께 완성하면서 12

편의 단편들을 모아 『더블린 사람들』로 출판하려고 하였다. 그는 이 12편의 단편을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 공적 생활”로 구분하여 배열하였으며, 맨 마지막 단편으로 배열된 「은총」은 다른 두 작품 「위원실의 파넬 추모일」(“Ivy Day in the Committee Room”)과 「어머니」(“A Mother”)와 함께 더블린의 “공적 생활”에 포함되었다(Letters 2, 111). 이런 구성은 1914년 6월 「두 건달」(“Two Gallants”), 「작은 구름」(“A Little Cloud”), 「죽은 자」(“The Dead”)등 3개의 작품이 더 첨가된 채 출판된 마지막 작품집에서도 구성의 큰 변화는 없었고, 「죽은 자」는 본래의 세 작품과 함께 “공적 생활”의 범주에 덧붙여졌다.

한편 『더블린 사람들』의 구성이 등장인물들의 나이에 따라 유년기, 청년기, 성년기의 연대순으로 구성된 반면 “공적 생활”은 이런 구성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독자로서 하여금 “공적 생활”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 단편집을 출판한 그랜트 리처즈(Grant Richards)에게 보낸 조이스의 편지는 그의 단편들이 “마비”를 공통된 주제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아일랜드의 “정신적 해방”을 목표로 조국의 “도덕사의 한 장을 구성”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면서도(Letters 2, 134) 특별히 “공적 생활”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붙이고 있지 않아, “공적 생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단지 처음 12편으로 작품집의 구성을 기획했던 작가의 의도를 추정해 볼 때, “공적 생활”을 다룬 3개의 작품들은 개인의 개별적 생활을 단계별로 다룬 앞서의 작품들과는 달리 더블린 시민들의 집단적 생활상을 다룬 것이라 하겠다. 특히 『더블린 사람들』이 단순한 풍속도가 아닌 “도덕사”를 목표로 하였기에, “공적 생활”이란 사회적 공동체의 왜곡된 집단의식이나 집단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 따라서 조이스는 아일랜드인의 사회적 공동 관심사를 정치(「위원실의 파넬 추모일」), 아일랜드 민족주의 문예운동(「어머니」), 종교(「은총」)의 세 범주로 크게 구분하여 각 범주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의 마비된 집단 이데올로기를 분석해낸다.

“공적 생활”을 다룬 3개의 단편들은 앞 단편들과 서술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앞서의 작품들은 대부분 의식의 흐름 수법 중에 “자유간접화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심리가 서술되는 반면, “공적 생활”에는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생각을 드러내는 서술이 사라지고 객관화된 관찰자의 보고 내용만이 기술된다. 자연히 여기서는 자유간접화법의 서술방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대신 등장인물의 대화 내용과 행동들이 객관적으로 기술될 뿐이다. 이러한 “문체”와 “서술적 관

집”에서의 변화로 “공적 생활”의 작품들에서는 “독자가 [작품의] 장면에서 서있으면 서도 마치 관찰자인양 거리를 두게 되는”(Peake 37) 효과를 갖게 된다. 그것은 “공적 생활”의 작품들이 등장인물 개인의 내면 심리와 생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가치관을 문제로 삼으려는 작가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더군다나 독자들은 등장인물의 외면적인 말과 행동만을 목격하지만 그 저변에 흐르는 진실과 가치의 왜곡을 감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말미에서 집중되는 절정의 순간에 반어적 풍자성이 강하게 노출된다. 이처럼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공유하는 “집단적인 천박성과 어리석음의 분위기”(Peake 37)는 아일랜드라는 사회적 공동체가 부딪치는 정신적 마비의 상황이다. “공적 생활”을 다룬 작품들은 한 개인의 마비된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통으로 공유하는 전도된 가치의 마비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공적 생활”의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공동체의 전도된 가치는 물질적 세속성에 있다. 식민지 아일랜드 사회를 집약하는 정치, 민족운동, 종교의 중요한 세 영역에서 물질적 세속성은 세기말 영국제국에 의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아일랜드의 공동체적 주체성을 무장해제시키는 핵심적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은총」은 종교를 물신화시키는 아일랜드 공동체의 근대적 세속성을 치밀하게 해부해 나간 작품이다.

「은총」은 『더블린 사람들』에서 중편 「죽은 자」를 제외하면 가장 긴 단편이다. 3부로 구성된 「은총」에 대한 비평가들의 해석은 일찍이 스타니슬러스(Stanislaus Joyce)가 단테의 『신곡』(*The Divine Comedy*)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에서 많은 암시를 받았다(S. Joyce 228). 즉, 커넨(Kernan)이 술꾼으로 몰락한 상태에서 가톨릭교회의 피정에 참가하여 영적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은 지옥에서 시작하여 연옥을 거쳐 천상으로 나아가는 『신곡』의 3부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조에 맞춰 커넨이 술에 취해 층계 바닥에 누워있는 몰락의 장면은 「지옥편」에,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예수회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피정에 참가하도록 설득하는 장면은 「연옥편」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피정에 참가하는 장면은 「천국편」에 해당된다. 물론 「은총」의 경우는 구원을 통해 천상에 도달하는 『신곡』의 결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예상하는 점에서 오히려 패러디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커넨의 성스러운 영적 구원의 과정이 외면적인 모양새만을 취했

을 뿐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코 영적 마비의 처음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구원의 첫 시작부터 실패의 전조가 깔려 있어서 그의 영적 구원을 찾으려는 제스처 자체가 풍자와 냉소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것은 「두 한량」에서 레너헌(Lenehan)이 콜리(Corley)를 기다리며 더블린 시내를 무의미하게 헤매다 귀 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율리시스』(Ulysses)에 등장하는 커넌을 보면 영적 변화는 커넌 술꾼으로서의 버릇도 전혀 버리지 못한 상태이다. 몰리(Molly)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한 마디로 말한다. “저 작달만한 술통 같은 주정뱅이 그이는 어디선가 낚자용 변소에 떨어져 혀가 물려 끊어졌다지”(U 18.734-5). 더구나 커넌의 실패는 그 개인만이 아니라 한 통속인 그의 친구와 설교자인 신부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더블린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된다.

「은총」의 제1부는 우선 커넌 개인의 영적 몰락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 시작된다. 층계에서 굴러 떨어진 그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아주 맥없이” 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엎어져 있다. 그의 옷은 “누워있는 바닥의 먼지와 질퍽한 물로 더럽혀져”(150) 있고 실크 모자는 저편에 굴러 떨어져 있다. 인사불성이 되어 오물 속에 널브러진 채 누워있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은 그의 인생이 몰락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실례가 된다. 이번 사태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늘상 일어나는 생활의 일부라는 것이 커넌 부인의 불평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다. 술에 젖어 살아가면서 곤궁한 그의 집안 형편은 재정 상태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준다. “커넌씨는 본래 신교 집안 태생이었으나 결혼할 당시 가톨릭으로 개종했는데, 20년 동안 성당 경내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톨릭을 비평하기를 좋아했다”(195). 이와 같은 서술자의 기술내용은 커넌의 영적 상태가 바닥임을 말해준다.

층계 바닥에 누워있는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지경이다. 그것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 층계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혀끝이 조금 깨물려 떨어져 나간”(191) 상태라서 말도 제대로 내뱉을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의 직업이 차(茶) 외판원이어서 차 맛을 감정하는 일이 필수적인데, 그의 혀끝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다. 작품의 모든 세밀한 사항에 유난히도 치밀한 조이스의 서술기법을 고려해보면, 혀의 한 쪽이 떨어져나간 상태는 「자매」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된 유클리드 기하학의 도형 “노먼”을 즉각 상기시킨다(전은경 외 287). 노먼의 불완전한 상황을 암시하는 혀끝이 떨어져나간 상태는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몰락한 커넨의 상황을 말해주는 은유이며 또한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정체성의 “환유”이다(Kershner 132).

층계 바닥에 형편없는 모양새로 누워있는 커넨의 모습은 당연히 평소 모습과는 전혀 판판이다. 왜냐하면 외판원인 커넨은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커넨씨는 자기 직업의 권위를 무엇보다 소중히 믿는 구식 외판원이었다. 그가 시내에 모습을 나타낼 때에는 언제나 약간 짙은 실크 모자를 쓰고 각반을 치고 있었다. 그는 이 두 가지 몸치장 덕분에 언제나 자기의 일이 잘된다고 말했다. (191)

그가 옷차림새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외판원이라는 직업상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옷차림이 자신의 위엄을 지켜주는 방어막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크 모자와 각반을 반드시 챙기는 그의 옷차림이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 준다는 신사의식의 발로이다. 사실상 그가 수입은 변변치 않아도 중심가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사회에서는 초라한 중산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가 다루는 품목이 수입산 영국 차라는 것을 보면 그가 접하는 고객들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소한 옷차림새라도 신사처럼 보여야 한다. 흥미롭게도 위 인용문에서 몸치장 “덕분에”(by grace of)라는 표현은 이 작품의 제목 “은총”(grace)을 상기시킨다. 종교적 의미로서의 “은총”은 영적인 실체인 반면, 커넨이 자신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여기는 의복이란 물질적 실체이다. 그가 생각하는 신사란 영적인 내면의 가치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모의 덕분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영국신사의 가치를 외면으로만 흉내 내는 피식민지인의 모방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동음어어의 언어적 말장난(pun)에 능란한 조이스는 이 어휘를 변형시켜 다시 한 번 사용한다.

그녀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성당 문으로 달려가서 신랑 신부를 보고는 말쑥하게 프록코트와 라벤더색 바지를 입고 한쪽 팔로 실크 모자를 우아하게 감싸 쥐, 쾌활하고 살찐 사나이의 팔에 기대어 샌디 마운트에 있는 바다의 별 성당에서 나오던 자신의 모습을 생생한 기쁨을 가지고 회상해 보는 것이었다. (193-4, 밑줄 필자 강조)

이 인용문은 결혼식에서 멋지고 “우아하게”(gracefully) 신사복을 차려입었던 남편의 모습을 커넌 부인이 회상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도 커넌 부인이 감탄해 마지않는 신사의 우아함은 커넌과 마찬가지로 의복의 형태로 판단된다. 성스러운 영적 은총과 대비되는 세속적인 옷차림이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신사의 외양과 풍모에 대한 강조는 커넌만이 아니라 그를 피정에 참여하도록 설득시키는 친구 모두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란 점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발전한다. 작품의 삼인칭 서술자가 커넌의 방에 찾아온 친구들을 지칭할 때 “신사들”이란 표현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것(196, 203)을 보면 분명 풍자적 의도성이 있음을 확인시킨다. 더구나 커넌에게 피정에 참여하도록 친구들이 권유할 때 유난히 신경 쓰는 사항은 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신사들인가 하는 점이다.

사람들은 모두 옷을 잘 차려 입었고 질서정연했다. 성당의 등불이 여기저기 트 위드 나사복으로 두드러져 보이고 검은 옷에 하얀 칼라 차림을 한 무리들과 까맣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녹색 대리석 기둥, 그리고 우중충해 보이는 유희 그림을 비쳤다. 신사들은 바지를 무릎 위로 약간 끌어올리고 긴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모자를 무릎 위에 안전하게 놓고 있었다. (212-13)

오랫동안 교회와 담을 쌓고 지내던 커넌이 친구들에 끌려 반 강제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는 내심 불안한 심정이다. 그렇지만 이곳에 모인 청중들의 옷차림새를 보는 순간 그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고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잘 차려입은 옷차림새는 바로 신사들을 지칭하는 기호가 된다. 커넌에게 신사는 내적 가치의 드러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옷차림새로 말해주는 사회적 위상의 표시가 되고 있다. 그의 신사 의식에는 중산층의 속물 의식이 그대로 배어있다. 「은총」의 중심 주제가 성스러움과 세속성을 바꿔치기 하는 더블린 중산층 시민들의 속물적 의식을 겨냥하고 있다면, 커넌의 신사 의식은 이런 속물적 타락을 말해주는 은유가 된다.

신사라는 사회적 위상을 중요시 여기는 속물성은 커넌의 침실에 모여든 친구들의 대화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그들이 아일랜드 가톨릭 종교, 즉 예수회의 특성을 논의하면서 커넌을 피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친구들이 가장 강조하는 사항도 예수회의 영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위상이다. “그들[예수회]은 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단”이며 “예수회 총회장은 교황 다음”(202)가는 자리라고 친구

커닝엄(Cunningham)이 예수회의 위상을 추켜세운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에 호응하여 맞장구를 친다. “그들은 영향력도 대단하지”(202). “그들의 성당을 보고 거기 모이는 회중들을 보란 말이야”(203). “예수회는 상류계급의 기호에 맞지”(203).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일면 커넨의 속물적인 허영심을 자극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것도 되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그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닝엄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공통된 의견을 가진 집단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종교야말로 진짜 종교지, 오래되고 근본적인 신앙이지”(205). 커닝엄을 비롯하여 친구들은 예수회의 사회적 위상에 기대어 한때 신교도였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와 등을 지고 살아가는 커넨에게 일종의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압박은 성공하여 커넨도 머뭇거리며 결국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만다. “그래. . .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203).

커넨의 영적 각성과 구원을 위해 피정에 참가하도록 설득시키는 친구들의 논리는 영적 가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회의 사회적 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커넨의 신사 의식이 사회적 계급이라는 속물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들 친구들도 교회의 가치를 세속적인 가치에 두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신사들이 참가하는 피정은 “지나치게 엄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우리처럼 세상일에 밝은” 사제가 주도하는 “사업가들을 위한” 피정이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는 “마치 일종의 친구간의 대화 같은 . . . 상식적인”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피정의 가치를 속되게 격하시킨다(203, 204). 친구들의 이러한 속된 표현 역시 커넨이 피정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그를 달래려는 의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도 피정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심리의 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의 실제 대화 내용은 교회의 세속적 권위와 경제적 위상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사는 바로 더블린 공동체의 속물의식을 대변해주는 지표이다.

종교적 성스러움을 비속함으로 격하시켜 발생하는 영적 마비의 아이러니는 단테의 「연옥편」에 해당하는 「은총」의 제2장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이 단편의 사건 진행은 반 이상이 커넨의 침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세속적인 영적 마비가 커넨 개인의 차원이 아닌 침실에 모여든 친구들 집단 전체의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화의 화제는 커넨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193)

의도 하에 아일랜드 예수회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그를 피정에 참가하게끔 만드는 미끼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한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지는 가톨릭 교회의 내용은 세속적인 앞서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교황의 장엄하고 성스러운 권위에 대한 것으로 바뀌어나간다. 이제야 대화 내용이 본래 목적과 부합하여 제대로 돌아가는 듯이 보인다. 교황의 엄숙한 교리가 논의 되고 교황 불과오설의 장엄한 역사가 대화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방안의 분위기도 진지하고 엄숙해지며, 마침내는 방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황의 권위에 일체가 되는 듯한 일종의 “집단적 환상”(Kershner 134)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방안의 사람들이 황홀하게 빠져든 집단적 환상의 실체를 살펴보면 가톨릭교회를 대변하는 교황의 권위일 뿐이며 가톨릭 교리의 성스러운 영적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들을 일체로 만든 집단적 환상은 교황이 내걸은 종교적 표어의 수사적 권위에서 생긴 것이지 그 표어의 성스러운 종교적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장면을 서술해가는 조이스의 풍자성은 종교의 매개체인 “종교적 수사”(Hodkins 431)에 의존하는 허황된 의식을 폭로하는 데서 생겨난다. 종교적 수사가 실체와 어긋나며 생기는 괴리에 조이스는 풍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다.

이들의 대화에서 종교적 수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인물은 커넨의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인 커닝엄이다. 친구들의 논의를 주도해가는 커닝엄의 태도는 언제나 권위적 목소리를 띠고 있으며 서로 간에 견해의 차이가 생길 때마다 그는 단호하게 최종 판단을 내린다. 방안에서 그의 역할은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교황의 역할과 흡사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판단과 지식은 오류로 점철된다. 교황 레오 13세의 종교적 표어를 “빛 위의 빛”이라는 커닝엄의 주장에 뒤늦게 커넨을 위로차 방문하여 커넨의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어든 식품상 포가티(Forgaty)가 제동을 건다.

“아니야, 아니야.” 포가티씨가 강하게 말했다. “그 점에선 자네가 틀린 것 같아. *Lux in Tenebris*였다고 생각해. ‘어둠 속의 빛’ 말이야.”

“오, 그래.” 맥코이씨가 말했다. “*Tenebris*가 아니라 *Tenebrae*지.”

“아닐세.” 커닝엄씨가 적극적으로 말했다. “*Lux upon Lux*[빛 위의 빛]가 맞아. 그리고 그의 전임자인 교황 비오 9세의 종교적 표어는 *Crux upon Crux*— 즉 ‘십자가 위의 십자가’였으니 그들 두 교황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이 같은 추론은 좌중의 인정을 받았다. (206-7)

포가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해나가는 커닝엄에게 결국 모두들 승복한다. 그러나 한 비평가가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밝혔듯이, 교황들은 어떠한 종교적 표어를 공식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다고 한다. 단지 12세 아일랜드 성인 성 말라카이(St. Malachy of Armagh)가 지은 『교황들의 예언』(*The Prophecy of the Popes*)이란 책에서 교황들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교황 자신의 종교적 표어인양 와전된 것이다. 더구나 『교황들의 예언』에서도 레오 13세의 표어는 “천국의 빛”(Light in Heaven)이었으며 피오 9세의 표어는 “십자가로부터 십자가”(Crux de Crux)였다고 한다(Adam 172-3). 결국 커닝의 친구들이 벌인 종교적 표어 논쟁은 모두 오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채는 사람은 없다. 오류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가티가 인용하는 드라이든(John Dryden)의 『압살롬과 아키토펠』(*Absalom and Achitophel*)에 나오는 구절도 “위대한 마음이란 미친 사람과 가장 가깝다”(208)가 아니라 “위대한 재치는 분명코 광증에 가장 가깝다”(Part I, 1:163)이어서, 이것 역시 잘못된 인용이다.

이들의 대화내용은 더욱 진전하여 교황의 절대적 권위를 뜻하는 교황 불과오설의 역사 논의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에서도 커닝엄이 논의를 주도권을 쥐고 설명해 나가지만, 역시 그의 설명은 오류 천지이다. 예를 들어, 교황의 불과오설을 반대한 독일 사람의 이름은 요한 뢰링거(Johann Doellinger)이며, 커닝엄의 설명처럼 추기경이 아니라 일반 사제였을 뿐이다(Gifford 107). 이처럼 커닝엄의 설명은 부정확하며 오류로 꼭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엄숙한 설명이 끝나자 모두들 승엄한 분위기에 압도된다.

커닝엄씨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거대한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깊고 우렁찬 목소리가 신앙이니 복종이니 하는 말을 터뜨리자 그들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커닝 부인이 손을 닦으며 방안에 들어왔을 때, 방안의 분위기는 엄숙하기만 했다. (210)

방안의 “신사”들이 벌이는 대화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독자는 이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엄숙한 분위기가 오히려 지극히 회화적으로 느껴진다. 이들이 체험하는 경건함은 가톨릭 교리의 성스러운 실제 내용에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거대한 이미지”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용의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오

직 말의 화려함과 이미지가 방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경건한 일체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것은 종교의 성스러운 교리 내용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황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가톨릭의 역사에 감명을 받은 것이다. 이들을 엄숙한 동지로 묶어주는 것은 종교적 수사이다. 이들은 모두다 신사의 옷치레와 마찬가지로 기의 대신 기표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러한 화려한 종교적 수사에 압도되어 커닝도 고해를 하겠노라고 스스로 굴복한다. “난 그저 조그마한 근심거리를 이야기하려는 거야.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 .”(211). 이 표현에서 보듯이 커닝이 고해하려는 방식은 “나의 조그마한 근심거리”(my little tale of woe)라는 “말”(tale)의 힘에 의존해 있다는 점에서 조이스는 끝까지 부풀려진 언어적 수사의 한계성을 풍자해간다.

종교의 매개체인 수사의 힘에 의존하여 실체와 괴리를 벌이는 일은 조이스에게 언제나 풍자의 대상이 된다. 「은총」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문제를 다룬 「자매」에서 플린 신부(Father Flynn)가 성직매매의 죄를 저질렀던 원인도 챈리스라는 성찬용 잔을 깨뜨린 실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시동의 실수로 깨뜨린 빈 챈리스가 마치 예수님의 신성함을 모독한 것으로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플린 신부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빈 챈리스는 종교적 신앙의 상징적 매개체일 뿐이고 예수님의 실제 존재는 아니다. 물질적 실체인 챈리스를 정신적 성령의 존재와 일치시킴으로써 플린 신부는 성스러움을 물질적인 것으로 대치하는 성직매매의 죄를 범한 것이다(홍덕선 16-17). 내면적 실체와 외면적 상징체를 혼동하는 플린 신부와 마찬가지로 「은총」의 커닝 일당들은 종교의 실체와 종교의 매개체를 뒤바꿈으로써 이들 역시 성직매매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단테의 「천국편」에 해당하는 「은총」의 제3부는 커닝과 친구들이 함께 교회의 피정에 참가하는 장면이다. 교회의 피정은 참가자들이 성스러운 영적 자극과 구원을 얻는 정점이어서 이들의 영혼을 이끄는 사제의 설교는 「은총」에서 가장 절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은총」에서의 실상은 그와 정반대로 지극히 세속성의 천박함이 난무한다. 교회에 모인 커닝과 그의 친구들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밖에 피정에 참가한 주변 사람들, 그리고 퍼든 신부에 이르기까지 이 피정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는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된다.

우선 커닝과 친구들이 한데 몰려 앉은 좌석의 모양새가 작품에서 특이하게 언급된다. 커닝과 커닝엄이 앞좌석에 나란히 앉고, 그 뒤에는 맥코이(McCoy)가 홀

로 앉았으며, 그의 뒷좌석에는 파우어와 포가티가 나란히 앉는다. 이렇게 해서 “[주사위의] 다섯 눈 꼴”(213)의 기하학적 형태가 이루어졌다고 작품 속에 기술된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낯선 이러한 기하학적 좌석 모형에 대해 비평가들의 해석은 다양하다. 기포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의 모형”(109)이라는 주석으로 이 도형을 종교적 상징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휴 케너(Hugh Kenner)는 단테의 「천국편」과의 병행관계로 파악하여 다섯 번째 천구에 나오는 용감한 자들의 영혼을 그린 배열을 암시한다고 해석한다(Kenner 61-62). 한편 이 기하학적 도형을 작품에 나오는 숫자적 패턴(2+1+2)으로 보는가 하면(Lobner 445-60), “노먼”이라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도형으로 해석하는 흥미로운 견해도 있다(Rice 412-14). 이것을 “노먼”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좀더 살펴보면, 평행사변형 중에 떨어져나간 한 귀퉁이 부분은 “주사위의 다섯 눈 꼴”의 한 점을 차지하는 커넨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은총」이 완성된 다음 해 1906년 6월 이전에 「자매」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그 수정 작업에서 “노먼”을 비롯한 “마비”와 “성직매매”라는 세 특이한 어휘가 삽입된 과정을 고려해볼 때, 이 두 단편에서 조이스가 기하학적 도형을 동시에 염두에 둘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더군다나 기하학적 도형만이 아니라 두 단편이 모두 “성직매매”의 주제를 공통적으로 다뤘던 점에서 조이스가 「자매」를 “「은총」의 구조적 보완물”(Rice 411)로 생각했을 거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두 단편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주사위의] 다섯 눈 꼴” 모형은 노먼의 역할을 수행하며, 커넨과 그의 친구들의 피정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암시한다.

피정의 설교는 “붉은 불빛”을 받으며 등장한 “힘 있어 보이는 풍채”의 퍼든 신부가 “우렁찬 목소리”로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우화를 인용하면서 시작한다(215). 이 우화는 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탕진하자 주인 앞에 불려와 돈을 잘못 관리했다고 꾸지람을 받는 부정직한 청지기의 내용이다. 주인에게 쫓겨날 처지에 놓인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 자리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주인에게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채무의 일부분을 탕감해준다. 비록 주인의 돈을 멋대로 탕감해주는 것이라도 이 일은 청지기가 남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일이어서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하는데, 그를 칭찬하는 말이 퍼든 신부가 인용한 8절과 9절이 된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약 빠르]다. 그러나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214)

이 구절은 퍼든 신부의 말마따나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절에 속한다. 주인의 금전을 청지기가 제멋대로 탕감해주는 일이 올바른 일처럼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금전과 재물은 세속적인 산물이어서 근본적으로 내 것일 수 없고 오직 하느님의 것이라는 세속에 초탈한 모습을 강조한다. 이런 문맥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세속의 자녀”에 속하는 청지기가 자기의 위기 상황에서 세속에 초탈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도록 행동을 결정한다고 주인은 일종의 반어적인 감탄의 말을 한다. 그리고 비록 청지기의 행위 동기가 순수치는 못해도 그 세속적인 재물을 탕감해 주는 행위 자체를 선행으로 생각하여 그를 칭찬한다.

퍼든 신부가 설교에서 인용한 『누가복음』은 작은 것에 정직하지 않은 자는 큰 것에서도 정직하지 못할 거라는 주인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이 우화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는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13).

퍼든 신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의 뜻은 모호할 수 있지만 인용한 이후의 구절에서 이 우화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16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세상의 부귀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은 결코 성스러운 영적 세계를 얻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퍼든 신부의 설교는 우화의 뜻이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 부분은 무시하고 반어적 의미가 담긴 부분만을 해석해 들어간다. 더구나 예수님의 반어적 의미가 담긴 그 인용한 글귀에서 반어적 의미를 삭제하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하는 오독을 저지른다. 즉, “세속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어라”의 문구는 재물에 탐내지 말고 남을 위해 베푸는 선행을 쌓으면 축복받을 거라는 뜻인데도, 퍼든

신부는 세속의 재물을 등지고 살 수 없는 세속적인 인간의 상황을 인정하는 글로 해석한다. 그는 이 구절이 “얼핏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곳에서 설교하신 높은 도덕성과는 모순될지도 모르는” 글귀라고 말한다(214). 이 우화는 배금주의자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인데도 퍼든 신부는 이 글귀가 “세속적인 인생을 영위해야 할 운명에 있는 사람으로서 속되지 않게 인생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지침으로서 특별히 적합한 것”(214)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세속적인 삶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오독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실업가와 직업인”(214)을 위한 글귀라고 그는 말한다. 이 글귀가 세속적이되 속되지 않게 살아갈 지침서라는 퍼든 신부의 해석은 “두 명의 주인,” 즉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와는 전혀 상반된 결론으로 이끌고 만다.

퍼든 신부의 성경 해석은 “실업가와 직업인”의 세속적인 삶을 은연중 인정하는 자세이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이 세속의 삶을 어느 정도 인정한 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다 종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요, 대다수의 인간들은 억지로라도 속세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이해하고 계셨다”(214). 결국 그의 해석을 확대하면, 대다수의 인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동시에 봉사해야 한다는 말로 귀결된다.

이제 그가 사제로서 전해줄 “충고의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동시에 조화롭게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성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교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없는 배금주의자들을 종교생활의 모범으로”(215) 만들 방법을 제시한다고 퍼든 신부는 설명한다.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화를 사용하듯이 퍼든 신부도 “실업인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왔으니 실업인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영혼의 회계사”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그의 방법론을 제시한다(215). 그것은 “각자가 영적 인생의 장부를 펼치고 그것이 양심과 정확하게 부합하는지”(215)를 살펴보며 회계장부의 수지타산을 맞추는 일이다.

자, 저는 회계장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점과 이런 점이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저의 장부를 올바르게 맞추어 보겠습니다. (215)

“영적 회계사”의 은유는 퍼든 설교 내용의 정체를 한 마디로 드러내는 이미지가

다. 퍼든 신부는 영적인 사항을 사업가의 회계장부에 비유하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게 만든다. 이러한 비유는 종교적 믿음을 금전의 출납 상태로 격하시킨다.

퍼든 신부는 그 이름(Father Purdon) 자체에서 보듯이 이 날의 피정에서 “배금주의자들”에게 세속적으로 살아온 그들 인생의 인생 자체를 ‘사면’(pardon)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러 나온 셈이다. 그리고 그 사면의 기준은 제대로 회계장부를 맞추었는가 하는 사업가의 능란한 역량에 달려있다. 각자의 인생과정에 어떤 죄를 지었던 영적 회계장부의 출납이 맞아들어 가기만 하면 모든 게 문제없다는 게 퍼든 신부의 주장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커년의 침실에서 그를 피정에 참가하도록 달래던 파우어의 말대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197, 198)라는 식이다. 인간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손쉽게 사면해주는 퍼든 신부의 행위는 중세시대 돈으로 면죄부를 팔았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전은경 외 295). 그러나 인간의 죄를 사면하여 영혼을 구원해주는 하느님의 은총은 하느님이 베푸는 성스럽고 초자연적이며 절대성을 지닌 선물이지 금전적인 회계 관리처럼 궁극적인 출납이 정확할 때 주는 보상이 아니다. 결국 퍼든 신부는 성스러운 은총을 금전적인 채무관계의 차원으로 비속화시키는 성직매매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붉은 불빛”을 받으며 연단에 선 퍼든 신부의 이름이 당대에 악명 높았던 더블린의 사창가의 옛 이름 퍼든 스트리트(Purdon Street)를 연상시키도록 조이스가 신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스타니슬러스의 지적은 퍼든 신부가 성직매매의 대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걸 이미 처음부터 독자에게 암시해준다(S. Joyce 225). 스타니슬러스의 설명에 따르면, 조이스는 퍼든 신부의 모델로 당시 신문지상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던 버나드 본 신부(Father Bernard Vaughan)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 신부는 설교를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권투 경기장에서 시합에 앞서 간략한 설교를 하는 등 대중의 인기를 쫓는 세속적인 복음주의파 신부였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자신을 “하느님을 광고하는 자이며 교회를 알리는 선전꾼(drummer)”이라고 부를 정도로 떠벌이었다고도 한다(Torchiana 219).

퍼든 신부는 하느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사면해주는 하느님의 메신저요 청지기이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설교를 사업가의 입맛에 따라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가며 그들의 영적 생활의 부족함을 마치 채무변재라도 하듯이 탕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3장의 우화에 나오는 부정한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과 동일하다. 이처럼 퍼든 신부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바를 무

시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죄악을 고스란히 범하고 있다. 퍼든 신부의 은총이란 성스러운 영적 은총이 아니라 물질적인 금전상의 혜택으로, 그 자신이 부정한 청지기가 된다. 조이스가 끈질기게 『더블린 사람들』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는 성직매매의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은총이란 어떤 대가도 없이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죄인의 구원을 위해 베푸는 은혜이다. 전적으로 무료로 베푸는 이 신성한 선물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취득되거나 되갚을 수도 없는 성스러움의 징표이다. 그것은 퍼든 신부의 해석처럼 이익관계에 따라 값을 지불하고 청산하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사업가들이 모인 참석자들의 기호에 맞춰 퍼든 신부는 은총을 마치 금전적인 비용에 따른 회계정리를 강조함으로써 신부인 그는 성직매매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은총」의 결말은 퍼든 신부의 설교로 끝을 맺지만, 이러한 영적 의미가 탈색된 그의 설교를 듣는 술주정꾼 커넌이 새로운 영적 변화를 겪을 것 같은 가능성을 찾기는 힘들다. 그것은 그와 동행한 세속적인 친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아일랜드 “실업가와 전문가”들에게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퍼든 신부 자체가 설교의 처음부터 피정의 참석자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영적 충격, 또는 성스러운 종교적 감흥을 주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자신이 오늘 저녁 이곳에 참석한 것은 어떤 무시무시하고 과장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요, 속세의 한 인간으로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215). 영적 변화가 아닌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참석한 더블린 중산층 참석자들, 그리고 이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설교, 이 모두가 서로 일종의 공모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커넌 개인의 영적 추락에서 시작된 「은총」의 내용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키면서, 영적 마비가 커넌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속성임을 해부해내고 있다.

III

「은총」에서 드러난 퍼든 신부의 설교는 개인적 오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주의 이념에 물들어가는 가톨릭교회의 세속성을 풍자하는데 조이스의 반어적 풍자 목적이 있다. 이런 세속성은 퍼든 신부의 설교에서 가장 극화되지만, 조이스

는 이미 작품의 처음부터 커넨과 그의 중산층 친구들한테서 이런 세속성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드러내주었다. 이들의 영적 타락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일종의 공모관계를 형성한다. 커넨과 친구들, 그리고 피정에 참가한 사업가들과 정치가들은 일종의 “위안”을 받으러 피정에 참여했으며, 이들의 기호에 맞게 부합하는 사제의 설교는 아일랜드 공동체를 맴도는 영적 마비의 현상, 즉 성직매매의 상황이다. 조이스는 이 단편을 통해 종교에 있어서까지 세속화된 아일랜드 사회의 “공적 생활”을 해부해 나간 것이다. 세속적인 경제적 권위에 토대를 둔 교회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 가치의 대안을 제공해주지도 못하면서 예측을 강화만 시킬 따름이다. 성스러운 종교적 은총까지 중산층의 세속화된 상업주의 이념으로 왜곡될 때 아일랜드 민족의 주체성은 더욱 멀어져만 간다. 이 짧은 단편은 아일랜드의 가톨릭교회에 그토록 신랄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조이스의 종교적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잘 닦인 거울”이다.

「은총」은 『더블린 사람들』의 단편들 중에서 손꼽히는 작품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단편에 못지않게 조이스 특유의 텍스트에 대한 세밀한 짜임새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자매」와는 주제 면만이 아니라 서술상의 특징도 서로 공유되는 면을 많이 갖고 있다. 즉, 언어적 말장난, 기하학적 도형의 상징, 교묘한 수사법, 반어적 풍자성과 희극성, 에피포니 등의 수법이 골고루 갖춰진 작품이다. 특히 이러한 수법을 바탕으로 조이스는 더블린의 세속화되어가는 공동체의 영적 타락을 면밀하게 해부해 나갔다. 이 단편에서 집중적으로 밝혀나간 성직매매의 주제는 조이스가 더블린 공동체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 주는 탄탄한 현실인식의 틀로 자리매김하였다.

(성균관대)

인용문헌

- 전은경, 홍덕선, 민태운 공저. 『조이스 문학의 길잡이: 더블린 사람들』. 동인, 2005.
- 홍덕선. “조이스의 언어실험: 「자매들」의 ‘idle/idol’을 중심으로.” 『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2집(1996): 5-18.
- Adams, Robert M. *Surface and Symbo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전은경 옮김. 책세상, 2002.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2nd Rev.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Hodgkins, Hope Howell. “‘Just a little . . . spiritual matter’: Joyce’s ‘Grace’ and the Modern Protestant Gentleman.” *Studies in Short Fiction* 32(1995): 423-34.
- Joyce, James. *Dubliners*. 김종건 옮김. 범우사, 1988.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Viking, 1976.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New York: Viking, 1986.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75.
- _____. *The Letters of James Joyce*. 3 vols. Ed. Stuart Gilbert (vol. 1) and Richard Ellmann (vols. 2-3). New York: Viking, 1966.
- Joyce, Stanislaus. *My Brother’s Keeper*.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and Faber, 1958.
- Kenner, Hugh. *Dublin’s Joyc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56.
- Kershner, R. B.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9.
- Lobner, Corinna del Greco. “Quincunxial Sherlockholmesing in ‘Grace.’” *JJQ* 28.2 (Winter 1991): 445-50.
- Osteen, Mark. “Serving Two Masters: Economic and Figures of Power in Joyce’s ‘Grac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37.1(Spring 1991): 76-91.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Artis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Phillips, Brian. "Joyce's Vision." *The Hudson Review* 57.2(Summer 2004): 191-206.

Rice, Thomas Jackson. "Paradigm Lost: 'Grace' and the Arrangement of *Dubliners*." *Studies in Short Fiction* 32 (1995): 405-21.

Abstract

The Secularization of the Sacred and the Simony in Joyce's "Grace"

Dauk-Suhn Hong

The object of this essay is to analyze Joyce's paradoxical view of religion in "Grace" in which he defends the sacred of religious dogma and ritual at the same time, criticizing the religious secularization of Irish middle-class Catholic community. In the short story "Grace," Joyce presents the Irish Catholicism as overwhelmingly, fatally materialistic and power-hungry as it works through community.

Joyce, at first, associates the debasing with materialism, on the emphasis upon the gentlemanliness of Christianity. The conversation of Kernan's friends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the social status of gentleman so that they seek material and social values even in religious matters. Next, Joyce dwells almost exclusively on the means of religion—especially, on the powers of religious rhetoric. Kernan's friends in his bedroom focuses on the words and images of the powerful authority of the Jesuits, which bind them together in a paradoxical community of deceit and belief. These speech acts tend to overwhelm their users so that, as with the gentleman's clothing, Kernan and his friends take the sign for the signified. Thirdly, the concluding scene in the spiritual retreat of the church again presents a sanctified picture of the same association of religion with money. Joyce strongly satirize Father Purdon's sermon that values spiritual conversion in terms of material success. "Grace" is Joyce's strong indictment of the Irish Church's appropriation of and accommodation with paralyzing economic ideology, and its consequent failure to fulfil its worshipers' spiritual needs.

■ Key words : James Joyce, “Grace,” the sacred, public life, simony, religion, gentlemanliness, secularization

(제임스 조이스, 「은총」, 성스러움, 공적 생활, 성직매매, 종교, 신사 의식, 세속화)

논문 접수: 2009년 5월 20일

논문 심사: 2009년 6월 9일

게재 확정: 2009년 6월 20일